# Ⅲ 국내보험시장

## 1. 주요지표[23)]

■ FY201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10.2% 성장하였으나, FY2012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7.3% 성장이 전망됨.

○ FY2011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5.8%에 그쳤으며, FY2012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으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진 4.7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FY2011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16.7% 성장하였으나, FY2012에는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 하락으로 11.1% 성장이 전망됨.

〈표 Ⅲ-1〉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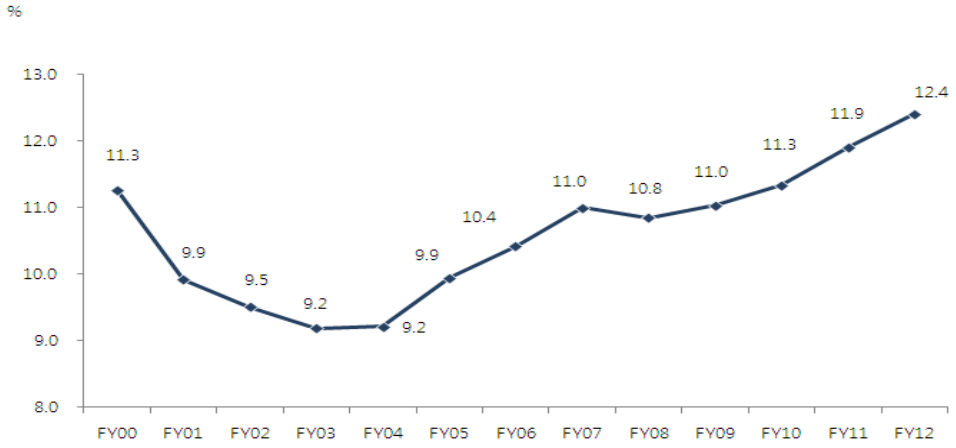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성장률 | 보험료 | 성장률 | 보험료 | 성장률 | 보험료 | 성장률 |
| 생명보험 | 77.0 | 4.6 | 83.0 | 7.9 | 87.8 | 5.8 | 92.0 | 4.7 |
| 손해보험 | 43.8 | 16.9 | 52.2 | 19.2 | 61.0 | 16.7 | 67.7 | 11.1 |
| 전체 | 120.8 | 8.7 | 135.0 | 11.8 | 148.8 | 10.2 | 159.7 | 7.3 |

■ FY2012 보험침투도(수입보험료/명목GDP[24)])는 수입보험료 성장이 경상GDP 성장을 상회하면서 전년보다 0.5%p 상승한 12.4%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23) 농협보험은 제외되었음.
24) 보험침투도의 명목GDP는 FY기준이며, FY2012 명목GDP는 4.4% 성장 전망.

〈그림 Ⅲ-1〉 보험침투도 추이




■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보험료 성장 둔화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으로 11.0% 증가에 그칠 전망임.

〈표 Ⅲ-2〉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총자산 | 증가율 | 총자산 | 증가율 | 총자산 | 증가율 | 총자산 | 증가율 |
| 생명보험 | 372.5 | 13.5 | 417.0 | 11.8 | 458.2 | 10.0 | 505.2 | 10.3 |
| 손해보험 | 86.1 | 16.4 | 102.0 | 18.7 | 129.8 | 27.0 | 147.3 | 13.5 |
| 전체 | 458.6 | 14.0 | 519.0 | 13.0 | 588.0 | 13.3 | 652.5 | 11.0 |

## 2.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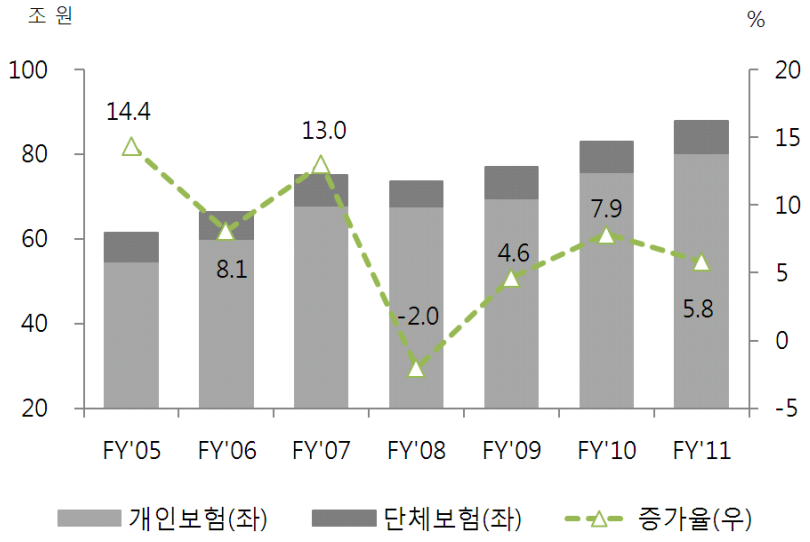
### 1) 수입보험료

■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5%대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.1%p 낮은 5.8% 성장에 그침.

○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저축성보험이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5.9%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년보다 2.8%p 하락함.

○ 단체보험은 제도 종료로 인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유입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이 고성장함에 따라 전년보다 5.8%p 높아진 5.3% 증가함.

〈그림 Ⅲ-2〉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
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○ FY2008 12.4%까지 상승했던 해약률은 FY2011 10.2%까지 하락하면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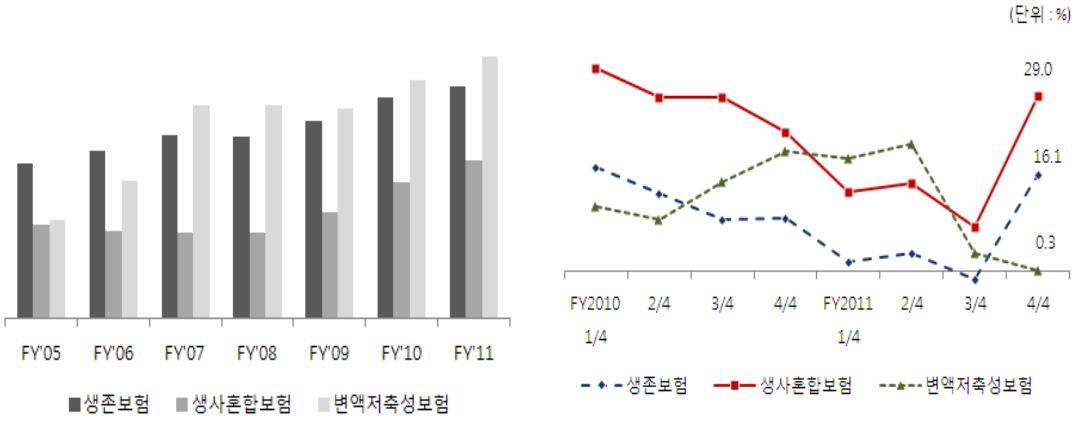
■ FY2012에는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보험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외부요인에 의한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4.7%의 성장이 전망됨.

○ FY2012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고용의 질 악화로 보장성보험, 변액보험, 단체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그러나 저금리 환경 속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 고금리가 부각되면서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세는 FY2012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○ 또한 연금생명표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생존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,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되면서 생존보험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됨.

〈그림 Ⅲ-3〉 저축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
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## 2) 보장성보험[25] 현황과 전망

■ FY201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및 암보험 등 건강보험 판매확대로 3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0.0% 성장으로 성장률이 개선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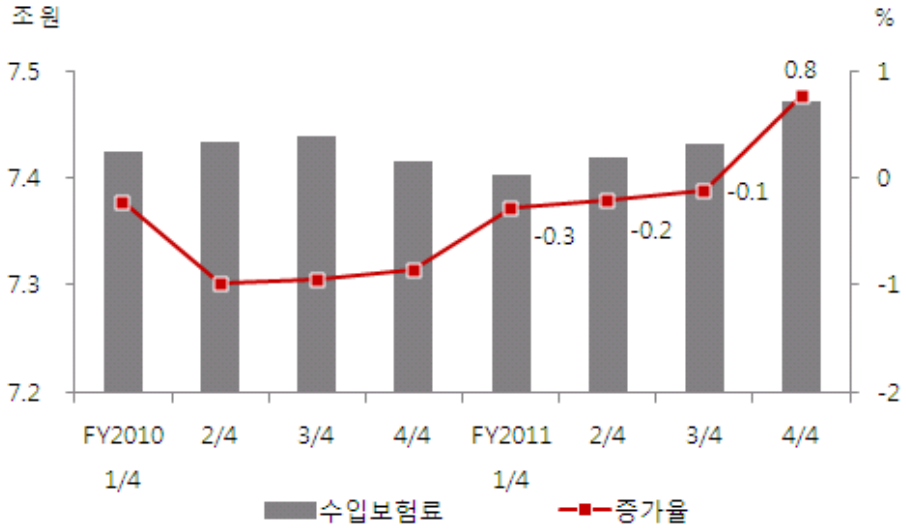
○ FY2010 3.7% 감소한 바 있는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통합형 보

25)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.

험의 수요가 지속되고 연금전환 기능을 부가한 신상품들도 출시되면서 FY2011 0.9% 증가함.

○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이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과 감독당국의 암보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신상품 출시를 확대함.

〈그림 Ⅲ-4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사망보험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둔화에 따라 고가의 종신보험 수요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0.3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○ 종신보험에 적립금의 연금전환 기능을 부가하고 연금전환 시에는 가입 당시의 생명표를 적용하는 신상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, 암보험 등 건강보험 확대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보장성 보험 확대를 통한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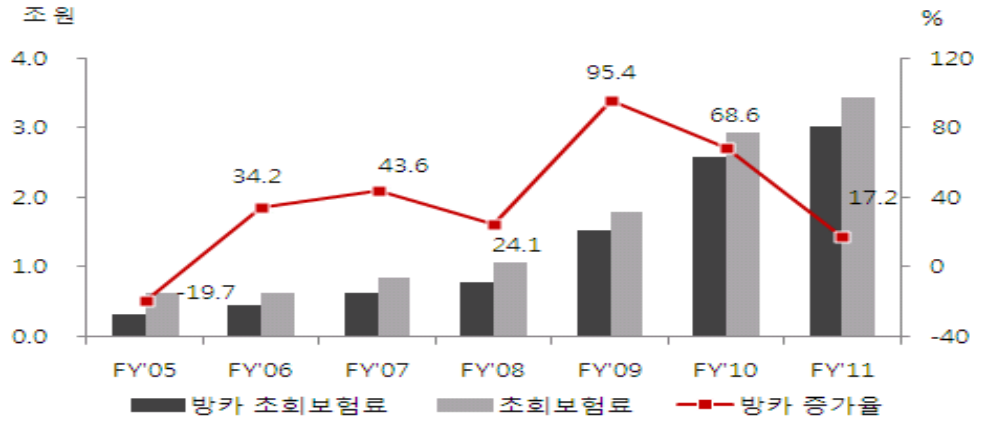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 2012년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소비 위축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 3) 저축성보험 현황과 전망

■ FY2011 저축성보험은 타 금융권을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확대되면서 9.6% 증가함.

○ 생사혼합보험은 FY2009, FY2010 각각 23.6%, 28.2%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, FY2011에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6.3%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견인함.

〈그림 Ⅲ-5〉 방카슈랑스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추이
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○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최근에는 카드회사까지 생사혼합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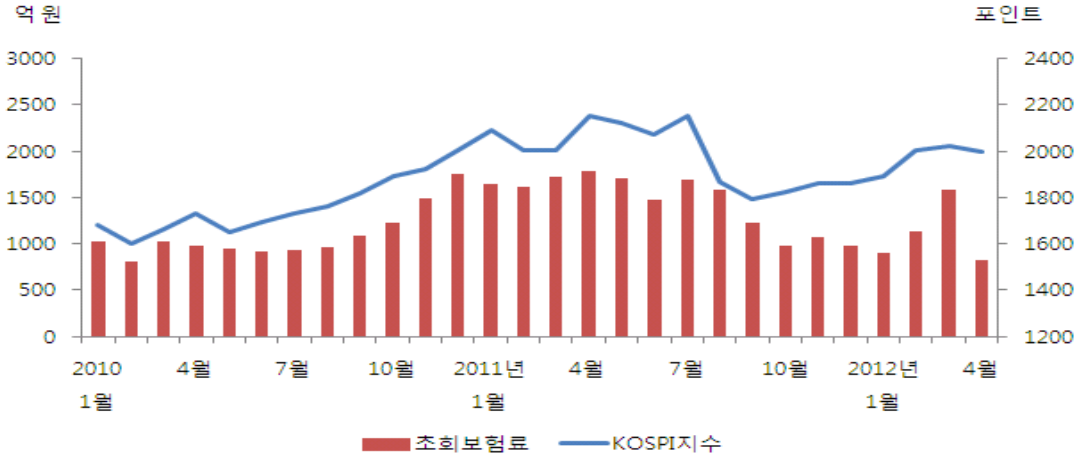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생사혼합보험의 상대적 고금리를 이용하여 보험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에 집중함.

○ 생존보험은 FY201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1 3/4분기까지 1.1% 성장에 머물렀으나 생명표 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4/4분기에는 16.1% 증가함.

○ 변액저축성보험은 FY2011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됨.

- 2011년 3월 말 2,091 포인트를 기록하던 코스피 지수는 2011년 8월 1,710 포인트까지 하락한 뒤 2012년 3월 말에는 다시 2,014 포인트까지 상승함.

〈그림 Ⅲ-6〉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




자료: KRX,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보험료 인상 전 수요확대 효과로 생존보험도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7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시중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경쟁력은

지속될 것으로 보임.

○ 한편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으로 타 금융회사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임.

-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공시이율 제시,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냄.

○ 생존보험은 보험료 인상 전 가입수요 확대가 FY2012 1/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고성장이 전망됨.

○ 변액저축성보험은 최근 불거진 수익률 논란과 경기악화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〈표 Ⅲ-3〉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보장성 | 299,386 | -1.8 | 297,126 | -0.8 | 297,243 | 0.0 | 298,283 | 0.3 |
| 저축성 | 397,165 | 6.6 | 460,277 | 15.9 | 504,609 | 9.6 | 539,693 | 7.0 |
| 합계 | 696,551 | 2.8 | 757,403 | 8.7 | 801,852 | 5.9 | 837,976 | 4.5 |

## 4)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

■ FY2011 단체보험은 제도종료로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유입이 중단되고 일반단체보험도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5.3%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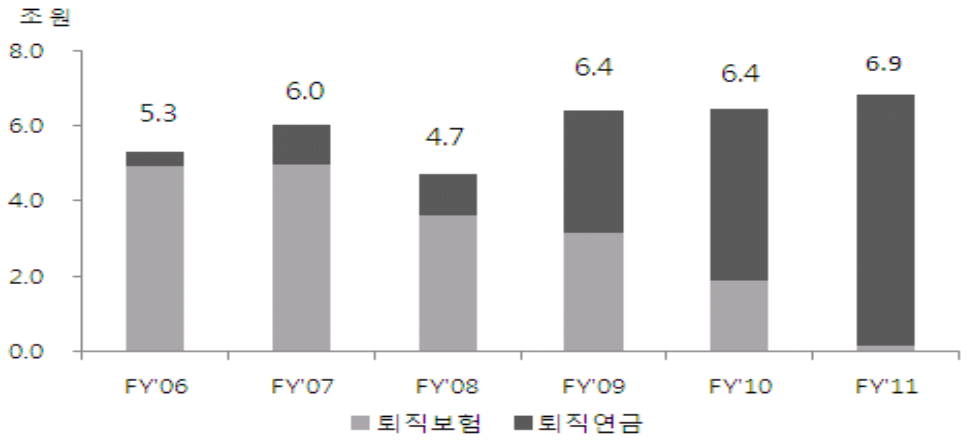
○ FY2011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어지면서 46.7%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각각 92.7%, 3.0% 감소함.

○ 201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9조 9천억 원으로 2010년

말 29조 1천억 원에 비해 71.3% 증가하였으며,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5.6%로 나타남.

- 2011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0년 26.1%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둔화됨.

〈그림 Ⅲ-7〉 퇴직보험,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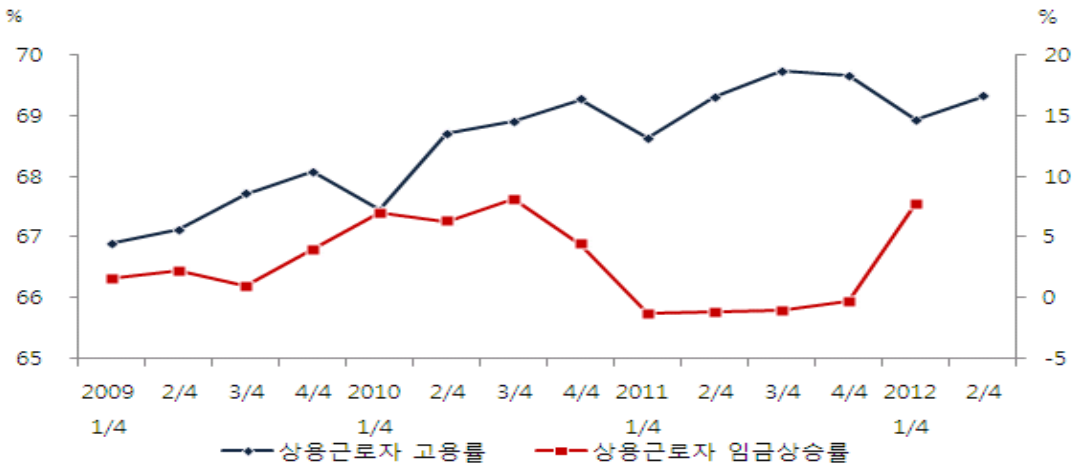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6.9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FY2012 퇴직연금시장은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되고 경기둔화에 따라 고용 악화 및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.

〈그림 Ⅲ-8〉 상용근로자 고용률 및 임금상승률 추이




자료: 통계청.

○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(2010년 말)이후 2011년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4.6%[26]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추가적인 대규모 신규가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○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'근퇴법'이라 함)이 퇴직연금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.

〈표 Ⅲ-4〉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일반단체 | 8,921 | -16.7 | 8,205 | -8.0 | 7,955 | -3.0 | 7,815 | -1.8 |
| 퇴직보험 | 31,654 | -12.5 | 18,678 | -41.0 | 1,373 | -92.7 | 0.0 | -100.0 |
| 퇴직연금 | 32,441 | 189.3 | 45,789 | 41.1 | 67,180 | 46.7 | 73,935 | 10.1 |
| 합계 | 73,017 | 25.7 | 72,672 | -0.5 | 76,508 | 5.3 | 81,750 | 6.9 |

26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.

〈표 Ⅲ-5〉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개인보험 | 696,551 | 2.8 | 757,403 | 8.7 | 801,852 | 5.9 | 837,976 | 4.5 |
| 단체보험 | 73,017 | 25.7 | 72,672 | -0.5 | 76,508 | 5.3 | 81,750 | 6.9 |
| 합계 | 769,568 | 4.6 | 830,074 | 7.9 | 878,360 | 5.8 | 919,726 | 4.7 |

- 근퇴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며, 퇴직자의 퇴직금이 IRA로 강제 이전되고 DB/DC형에 가입한 재직자와 일반자영업자도 IRA 가입이 가능해짐.

○ 한편,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## 3. 손해보험

### 1) 손해보험 개요

■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고성장으로 16.7% 증가하였으나,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2.5%p 하락함.

○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저축성보험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(21.0%)에 이어 21.2%의 고성장을 기록함.

○ 연금부문[27]은 정부의 연금활성화를 위한 노력[28]과 노후 소득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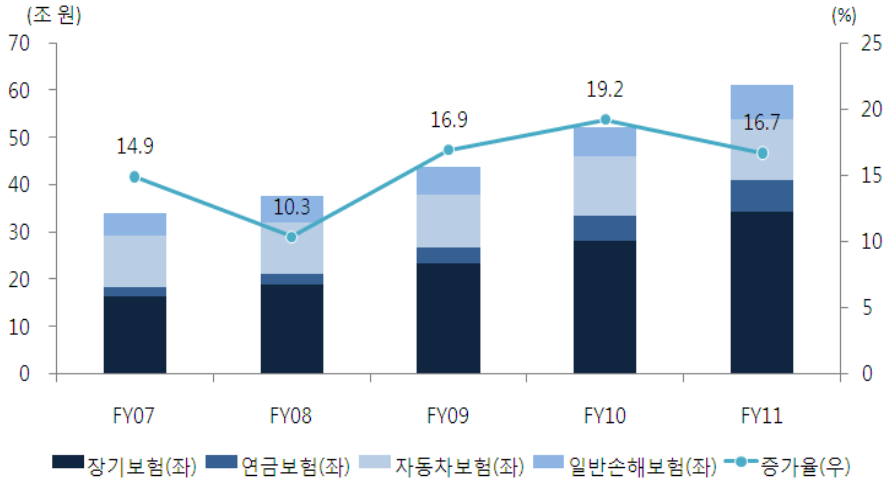
27) 연금부문은 개인연금,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.
28)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,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.

대한 관심 증가로 24.8% 증가하였으나,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전년에 비해 29.9%p나 하락함.

○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, 담보별 요율 조정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5.5%p나 낮아진 5.1%에 그침.

○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해상, 보증, 특종의 양호한 증가세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5.1%p 상승한 12.7%를 기록함.

〈그림 Ⅲ-9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감소로 11.1% 증가할 것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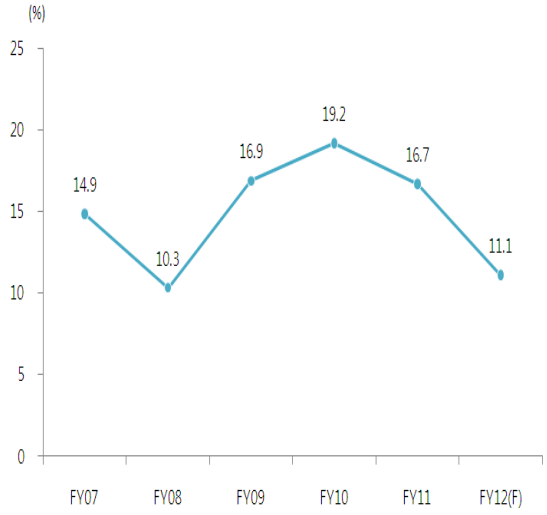
○ 장기손해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증가 추세에 힘입어 13.3% 성장이 예상됨.

○ 연금부문은 퇴직연금이 신규가입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개인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21.5% 증가가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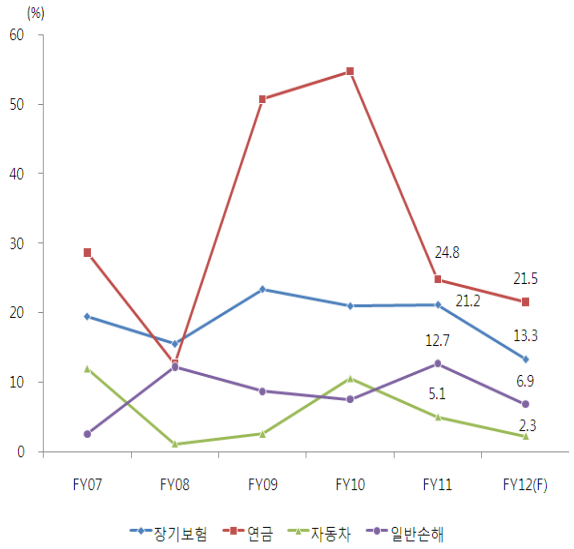
○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보험요율 인하로 성장률이 2.3%로 낮아질 전망임.

○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 증가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로 6.9% 증가에 그칠 전망임.

〈그림 Ⅲ-10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
〈그림 Ⅲ-11〉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
## 2) 장기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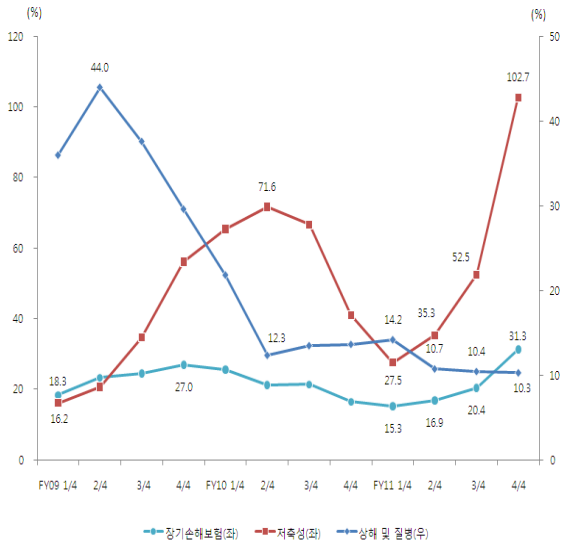
■ FY20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고성장으로 21.2% 증가하였으며, 3년 연속 20%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냄.

○ 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들이 하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를 확대함에 따라 55.8%의 고성장을 지속함(FY2010 59.9%).

○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초회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률이 FY2010 15.1%에서 FY2011 11.4%로 둔화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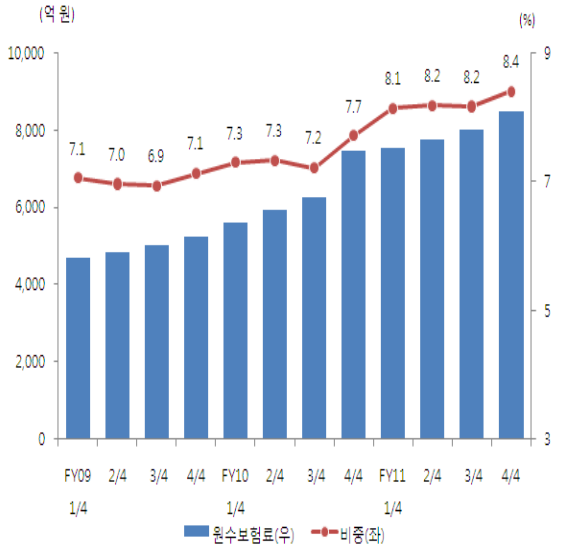
○ 재물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16.2%p나 상승한 33.1%를 나타냈으며,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남.

〈그림 Ⅲ-12〉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〈그림 Ⅲ-13〉 재물보험 원수보험료 및 비중




주: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.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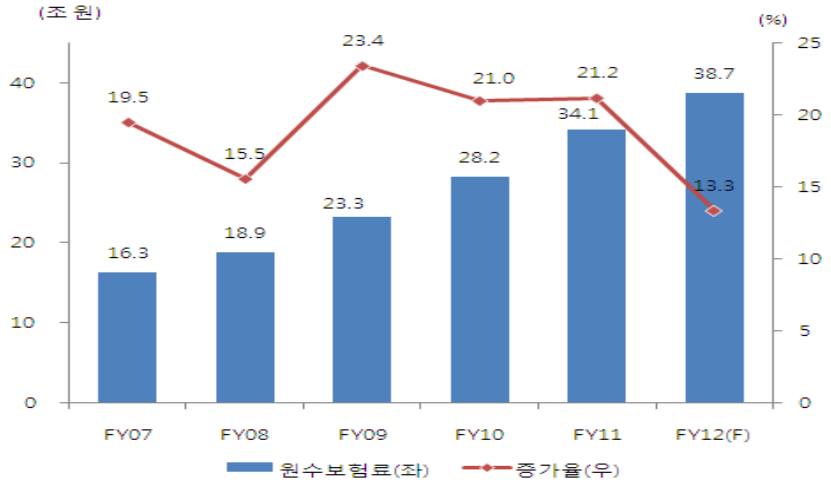
■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호조세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13.3%가 될 것임.

○ 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이 유지되고 전년도 고성장으로 계속보험료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26.1% 성장이 전망됨.

○ 상해 및 질병보험은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신규가입 확대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성장률은 8.5%가 될 전망임.

○ 재물보험은 최근 2년 동안의 고성장에 힘입은 계속보험료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.1% 성장이 전망됨.

〈그림 Ⅲ-14〉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
〈표 Ⅲ-6〉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저축성 | 39,119 | 32.0 | 62,541 | 59.9 | 97,465 | 55.8 | 122,872 | 26.1 |
| 상해·질병 | 113,921 | 36.5 | 131,141 | 15.1 | 146,045 | 11.4 | 158,451 | 8.5 |
| 재물 | 18,635 | 2.9 | 21,791 | 16.9 | 28,993 | 33.1 | 34,833 | 20.1 |
| 기타[1] | 61,312 | 6.4 | 66,340 | 8.2 | 68,929 | 3.9 | 70,785 | 2.7 |
| 합계 | 232,988 | 23.4 | 281,813 | 21.0 | 341,432 | 21.2 | 386,941 | 13.3 |

주: 1) 기타에는 운전자, 통합형, 자산연계형이 포함됨.

### 3) 연금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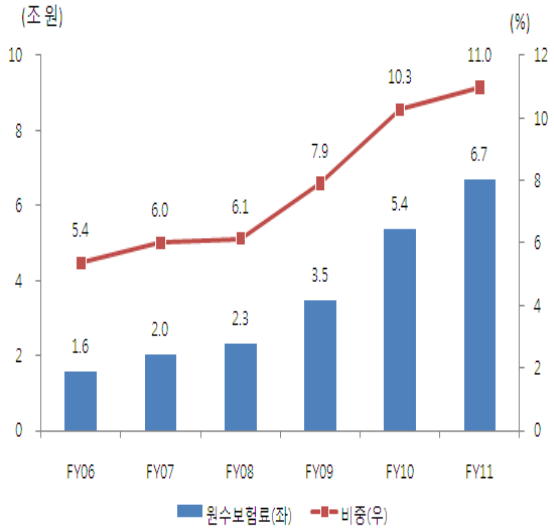
■ FY2011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성장으로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.0%로 늘어났으나,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29.9%p나 둔화된 24.8%를 기록함.

○ 개인연금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연금저축[29]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분기별 30%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.

29)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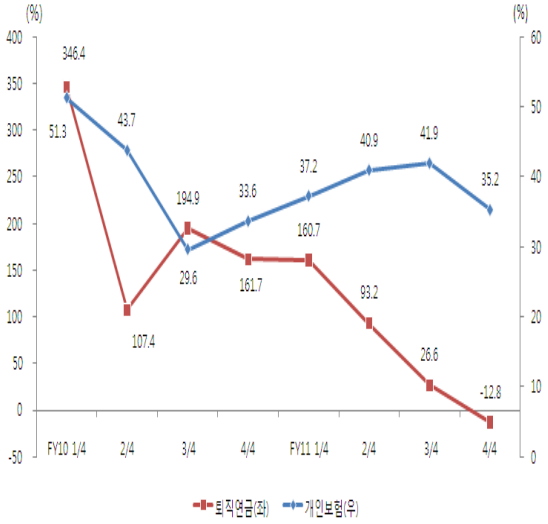
○ 퇴직연금은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[30]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[31]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 기준 34.6%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전년에 비해 156.3%p나 낮아짐.

〈그림 Ⅲ-15〉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및 비중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〈그림 Ⅲ-16〉 연금부문 증가율 추이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신규가입 부진과 기저효과 등으로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21.5% 증가가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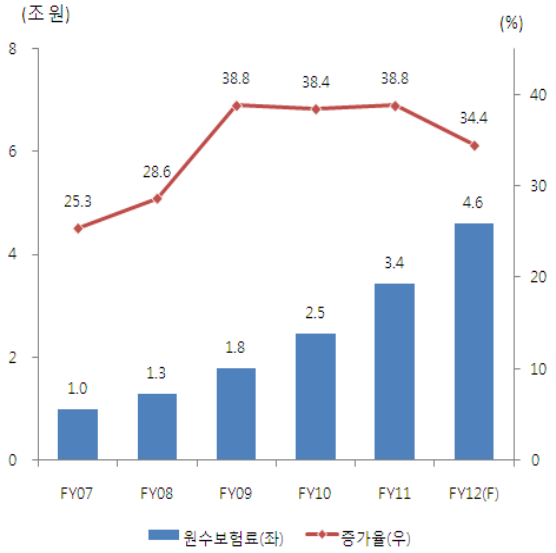
○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,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혜택 기간만료[32]로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혜택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34.4% 고성장이 전망됨.

○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및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가입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고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10.9%가 될 전망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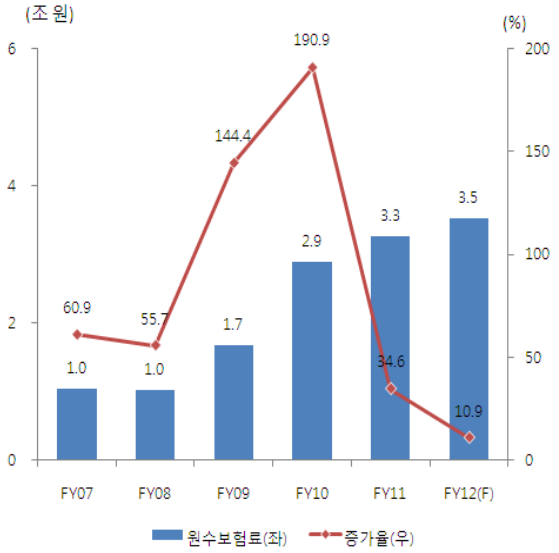
30)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신규가입·추가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종료됨.
31)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%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 폐지됨.
32) 「조세제한특례법」에서 소득공제혜택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함.

- 단, 2012년 7월'근퇴법 개정'등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의한 시장 확대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.

〈그림 Ⅲ-17〉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




〈그림 Ⅲ-18〉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




〈표 Ⅲ-7〉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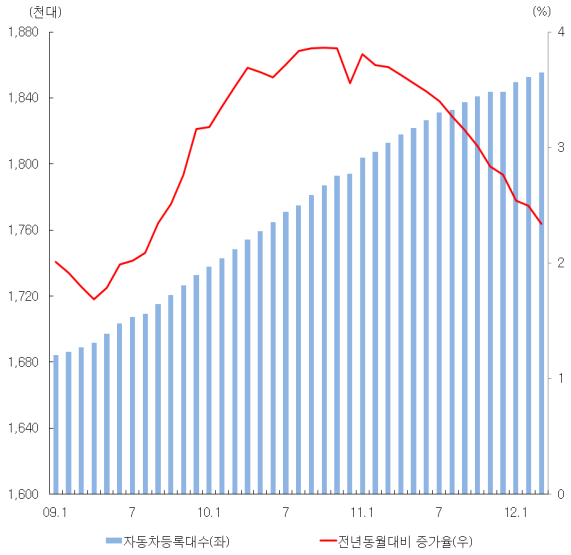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개인연금 | 17,841 | 38.8 | 24,697 | 38.4 | 34,273 | 38.8 | 46,072 | 34.4 |
| 퇴직보험 | 8,680 | 27.5 | 5,284 | -39.1 | 835 | -84.2 | 0 | -100.0 |
| 퇴직연금 | 8,119 | 144.4 | 23,616 | 190.9 | 31,791 | 34.6 | 35,245 | 10.9 |
| 합계 | 34,641 | 50.7 | 53,598 | 54.7 | 66,900 | 24.8 | 81,317 | 21.5 |

## 4) 자동차보험

■ FY20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, 담보별 요율 조정,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5.1%에 그치면서 전년에 비해 5.5%p나 하락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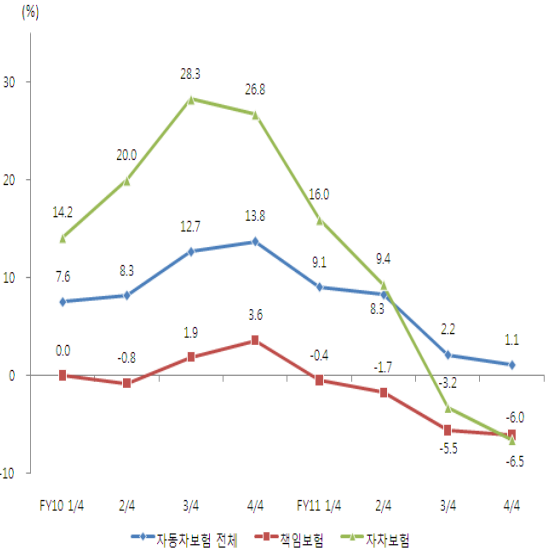
○ 경기둔화로 자동차 등록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%대로 낮아지고, 담보별 요율 조정으로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됨.

〈그림 Ⅲ-19〉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




자료: 국토해양부.

〈그림 Ⅲ-20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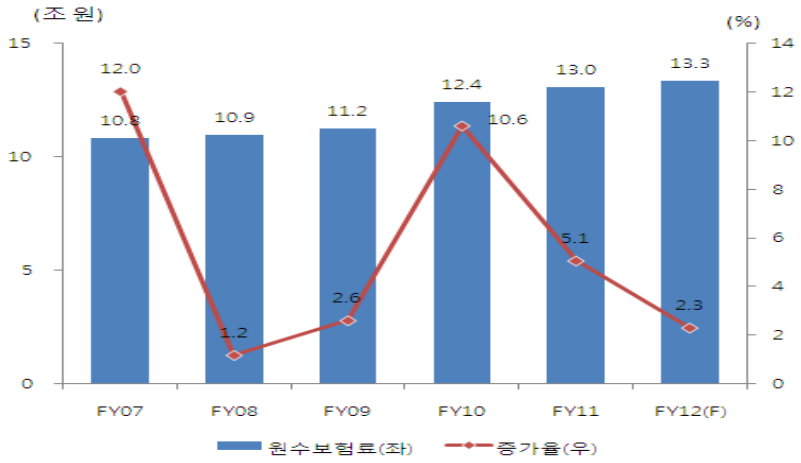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 및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2.3%의 저성장이 전망됨.

○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감소하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됨.

○ 단, 차량고급화·대형화에 따른 담보 금액 증가,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.

〈그림 Ⅲ-21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〈표 Ⅲ-8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자동차 | 112,224 | 2.6 | 124,133 | 10.6 | 130,415 | 5.1 | 133,422 | 2.3 |

## 5) 일반손해보험

■ FY201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증가세로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5.1%p나 높아진 12.7%를 기록함.

○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[33]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늘어났으나 기존 계약이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0.9% 감소하였으며,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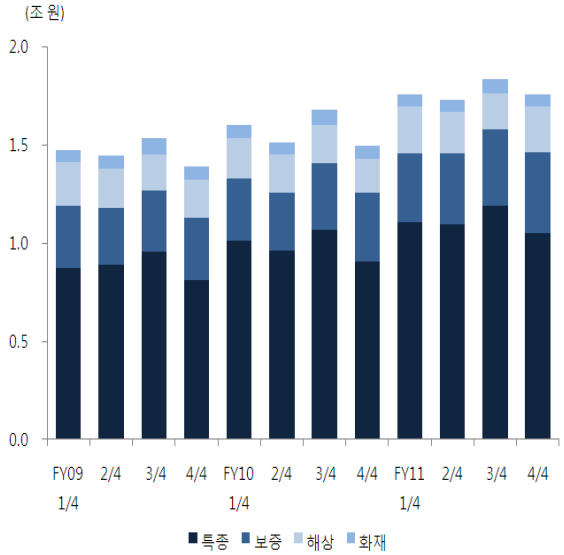
○ 해상보험의 경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해양책임보험이 하반기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함에 따라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2.7% 증가함.

○ 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및 통신 관련 신용보험 증가에 힘입어 16.1%나 증가하였으며,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9.7%p나 상승함.

○ 특종보험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2.5% 증가하여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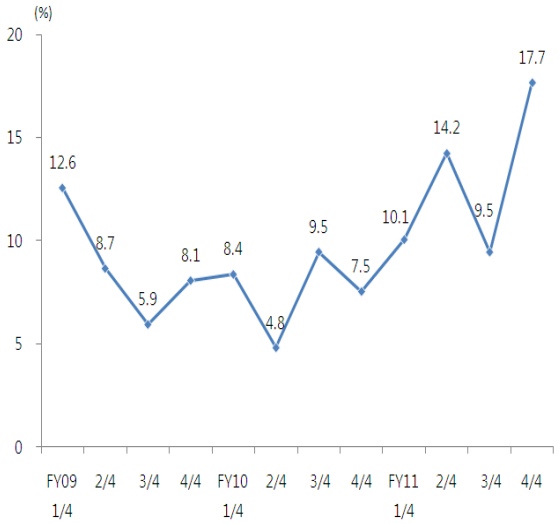
33)'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(「화보법」)'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, 다중이용업소, 운수시설이 추가됨.

〈그림 Ⅲ-22〉 종목별 원수보험료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〈그림 Ⅲ-23〉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저성장과 화재, 특종, 보증보험 성장세 둔화로 6.9% 증가가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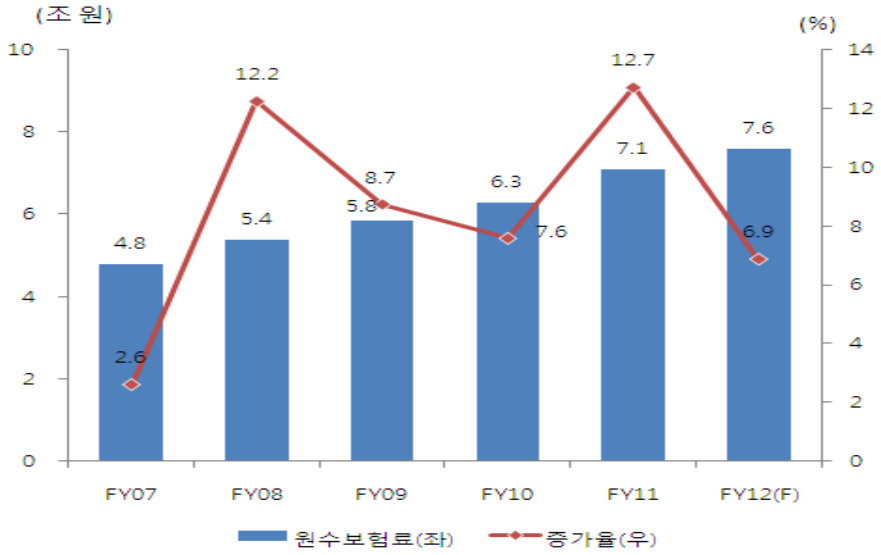
○ 화재보험은 뚜렷한 시장 확대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.0% 감소할 전망임.

○ 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세계 경기둔화로 제한적인 성장에 머무르고 해양책임보험이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1.3% 성장이 전망됨.

○ 보증보험의 경우 건설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성장세 둔화로 7.7% 증가가 예상됨.

○ 특종보험의 경우 건설투자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기술보험 실적이 저조할 것이고 경기둔화로 상해보험과 종합보험 성장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8.1% 증가가 전망됨.

〈그림 Ⅲ-24〉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
〈표 Ⅲ-9〉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화재 | 2,763 | -2.5 | 2,660 | -3.7 | 2,636 | -0.9 | 2,609 | -1.0 |
| 해상 | 8,049 | -5.4 | 7,721 | -4.1 | 8,699 | 12.7 | 8,816 | 1.3 |
| 보증 | 12,287 | 6.6 | 13,074 | 6.4 | 15,172 | 16.1 | 16,344 | 7.7 |
| 특종[1)] | 35,371 | 14.5 | 39,446 | 11.5 | 44,394 | 12.5 | 48,002 | 8.1 |
| 합계 | 58,470 | 8.7 | 62,901 | 7.6 | 70,901 | 12.7 | 75,772 | 6.9 |

주: 1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## 〈표 Ⅲ-10〉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FY2009 | | FY2010 | | FY2011 | | FY2012(F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장기손보 | 232,988 | 23.4 | 281,813 | 21.0 | 341,432 | 21.2 | 386,941 | 13.3 |
| 저축성 | 39,119 | 32.0 | 62,541 | 59.9 | 97,465 | 55.8 | 122,872 | 26.1 |
| 상해·질병 | 113,921 | 36.5 | 131,141 | 15.1 | 146,045 | 11.4 | 158,451 | 8.5 |
| 재물 | 18,635 | 2.9 | 21,791 | 16.9 | 28,993 | 33.1 | 34,833 | 20.1 |
| 기타[1] | 61,312 | 6.4 | 66,340 | 8.2 | 68,929 | 3.9 | 70,785 | 2.7 |
| 연금부문 | 34,641 | 50.7 | 53,598 | 54.7 | 66,900 | 24.8 | 81,317 | 21.5 |
| 개인연금 | 17,841 | 38.8 | 24,697 | 38.4 | 34,273 | 38.8 | 46,072 | 34.4 |
| 퇴직보험 | 8,680 | 27.5 | 5,284 | -39.1 | 835 | -84.2 | 0 | -100.0 |
| 퇴직연금 | 8,119 | 144.4 | 23,616 | 190.9 | 31,791 | 34.6 | 35,245 | 10.9 |
| 자동차 | 112,224 | 2.6 | 124,133 | 10.6 | 130,415 | 5.1 | 133,422 | 2.3 |
| 일반손보 | 58,470 | 8.7 | 62,901 | 7.6 | 70,901 | 12.7 | 75,772 | 6.9 |
| 화재 | 2,763 | -2.5 | 2,660 | -3.7 | 2,636 | -0.9 | 2,609 | -1.0 |
| 해상 | 8,049 | -5.4 | 7,721 | -4.1 | 8,699 | 12.7 | 8,816 | 1.3 |
| 보증 | 12,287 | 6.6 | 13,074 | 6.4 | 15,172 | 16.1 | 16,344 | 7.7 |
| 특종[2] | 35,371 | 14.5 | 39,446 | 11.5 | 44,394 | 12.5 | 48,002 | 8.1 |
| 전체 | 438,323 | 16.9 | 522,444 | 19.2 | 609,648 | 16.7 | 677,452 | 11.1 |

주: 1) 기타에는 운전자, 통합형, 자산연계형이 포함됨.
2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